

## 日韓の外食文化

学校からの帰り道、友達と何かを食べながらおしゃべりをするのは、ストレス解消にもってこいですね。日韓の高校生はどんなところで外食を楽しんでいるのでしょうか。日本ではだいたい学校の近所のファーストフード店や大型スーパーのフードコートなどに行くことが多いようです。韓国の高校生の間でもファーストフード店は人気ですが、学校の近所にあるトッポッキ(甘辛いソースとお餅をからめたもの)や韓国風おでんの屋台でも高校生の姿をよく見かけます。また、コンビニでカップラーメンなどを食べながらおしゃべりしている学生も多いです。どちらの国にも共通しているのは、手軽に食べられて、早く出てきて、値段も安いところに集ま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。

하교길, 친구들과 뭔가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.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곳에서 외식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? 일본에서는 대체로 학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나 대형마트의 음식코너 등에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한국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패스트푸드 가게는 인기가 많지만, 학교 근처에 있는 떡볶이나 어묵 포장마차에서도 고등학생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수다 떨고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. 양국에 공통적인 것은 쉽게 먹을 수 있고, 빨리 나오고, 가격도 싼 곳에 모인다는 것이 아닐까요?